

“2명 죽어있다” 거짓말... 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경찰, 술 마시다 거짓 신고한 60대 과태료 부과 112 허위 신고 행위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

112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 대상자가 나왔다.

7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 112신고처리법을 위반한 A(62)씨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통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2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인근 모 건축자재 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죽어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 경찰서는 A씨 신고를 받고 발각 뒤집혔다.

112종합상황실은 대낮 도심 도로에서 남성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면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 0'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해 지구대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형사팀에도 코드 0 출동 지령이 하달됐다.

지구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도로에는 남성 2명이 쓰러져 있었지만, 외상은 없고 의식과 호흡도 멀쩡한 상태였다. 또 이들에게선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알고보니 쓰러져 있던 남성 2명

은 이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도로에 잠시 누워 쉬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A씨는 평소에도 이들과 해당 장소에서 자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짓 신고 경위를 캐묻는 경찰관 추궁에 “지인들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으니 아픈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외롭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했다. 제주지역에서 112신고처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112신고처리법은 거짓 신고 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전에는 112 허위 신고 대부분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벌금 최고액이 6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3년 간 제주경찰이 접수한 112 거짓 신고도 2022년 62건, 2023년 89건, 지난해 132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악성 거짓 신고는 치안 공백과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거짓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도민 모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미터기 조작’ 의혹 특별교통수단 관리 강화 제주도, 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체계 개선

제주도내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불거졌던 운전원 '미터기 조작' 의혹과 특정인의 지나친 이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운영 체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센터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도의회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일부 운전원들이 승객이 내린 뒤에도 손님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미터기를 조작해 운행료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내부 제보에도 센터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한 이용자가 많게는 1542회

까지(지난 1~10월) 이용하는 등 특정인이 지나치게 사용하는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미터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센터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이를 통해 미터기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내부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어 처분 기준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에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제주도는 바우처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사와 이용자 간의 '짬짜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조사를 비롯해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가족, 지인 등이 대신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자 신분 확인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던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는 월 60회로 정해진다. 특정인의 무분별한 이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지은기자

불법 현수막 수거원 모집 제주시, 오는 17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불법 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거처리원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행정 공백을 틈타 금·토·일요일에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이 주요 수거·처리 대상이다.

수거처리원 1인당 수거 보상금 월 지급 한도는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시에서 불법 현수막 6115건을 수거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 시민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된 사람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참고. 문의 728-2972. 친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호해수욕장 환경 정비 7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노인 1700명에 폭리 취한 ‘뺨다방’ 일당 검출 제주자치경찰, 최근 홍보강사 A씨 등 13명 검출 송치

제주지역에서 노인 1700여명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치매와 당뇨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이른바 ‘뺨다방’ 일당이 전원 검출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단은 최근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위반,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검출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은 앞서 뺨다방 총괄관리이사 40대 B씨와 홍보관 대표 40대 C씨, 홍보관 점장 50대 D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

월까지 제주시내 2곳에 홍보관을 차린 뒤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당뇨, 치매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고 판매해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1700여명에 달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두 배 늘었다

도, 지난해 35억9334만원 모금... 전년 대비 97% ↑ 20대 기부자 174% 증가... 10만원 이하 기부 98.9%

지난 한 해 제주에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이 35억원을 넘어섰다. 20대 기부자도 전년 대비 174% 증가하며 모금액 상승에 힘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로 35억9334만원을 모금했다고 7일 밝혔다. 모금 첫해인 2023년 모금액(18억2335만원)보다 9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2년간 누적 모금액은 54억1600만원이다.

모금액 상승에는 젊은 층의 참여가 한몫했다. 지난해 20대 기부 건수는 6138건으로 전년(2240건) 대비 174% 늘었다. 전체 기부자 중에는 30대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7.4%, 20대 18.1%, 50대 17.5% 순이었다.

기부 액수는 1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그 비율이 전체 기부 건수의 98.9%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확인증 자동 발급과 연속기부자 예우정책 신설, 답례품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전체 모금액 상승과 젊은 층의 관심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며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아래조성

포트묘

화분묘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성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무량품종 1~3년생(포토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성 / 유라조성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성수 2~7년생(포토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송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토묘 >

도내 최대 <포토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